

# 성경의 경제규범에 관한 고찰<sup>1)</sup>

권명중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논문요약** : 본 논문에서는 공리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후생경제학의 경제규범의 대안으로 성경으로부터 경제규범을 도출하였다. 성경경제학의 경제규범은 기존의 경제학의 경제규범과 경제정의에 대한 관점, 경제가치에 대한 평가방식, 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다르다. 이러한 규범의 차이가 현실경제에서 자원의 사용과 처분에 대한 결정, 근로와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의 차이를 유인한다. 성경의 경제규범이 기존의 경제학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경제현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 분석은 성경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간 행동에 대한 공리주의적 가정으로부터 탈피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선호와 동기를 고려하는 다양한 가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 분석에 문화의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타락이 심한 문화는 합리적 경제인 모형이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할 수 있지만, 신의 품성의 반영된 문화는 창조가치를 반영한 경제인 모형이 경제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셋째, 경제 분석의 의제에 성경의 원칙이 포함된 성경 경제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1) 이 논문은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쓴 경제학입문' (황의서 외, 2015)의 3장 '규범경제학과 성경경제학'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경제학이 학문으로 처음 형성된 시기에는 규범적 경제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경제가 복잡해지고 사회구성원의 가치가 다양해짐에 따라 실증경제 분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반비례해서 규범경제 분석은 상대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주요한 경제학 저널에 출간되는 논문에서 규범경제학 관련 주제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학교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집필된 경제원론 교과에서도 규범경제학에 대한 소개가 최소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규범은 근로와 소비, 거래와 생산에서 윤리적으로 올바른 결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동인된다. 따라서 규범경제학은 실증경제학 못지않게 활성화되고 확산되어야 할 연구 분야이다.

주류 경제학에서 규범적 경제 분석을 하는 분야가 후생경제학이다. 후생경제학의 경제 분석에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사회후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파레토 원칙'이다. 이 두 가지 기준 모두가 공리주의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리주의 가치관이 시공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후생경제학의 공리주의 가치기준을 대체하는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공리주의 가치관의 대안으로서 롤스의 사회계약이론(Rawls (1971))에 근거한 가치관이나 기계적 평등주의 가치관이 제시되었다. 이런 대안은 공리주의와 다른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런데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철학이나 이념 이외에도 종교 또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종교의 가치관을 경제 분석에 적용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종교 중에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성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문제의 규범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이러한 연구가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신학자나 윤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시도를 그 동안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경제이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신학적 명제에 치우쳐 있거나 경제철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신학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오로지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규범을 도출하고, 이러한 경제규범과 주류경제학의 공리주의 경제규범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비교를 통해, 성경적 경제규범이 기존의 주류 경제학의 규범과의 차이를 드러내서 경제학의 규범분석 범위를 확장하고, 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성경의 내용을 창조, 인간의 독립과 타락, 심판과 약속, 새로운 약속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으로부터 성경의 가치관이 반영된 경제 운영원리를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논의된 성경의 가치관이 반영된 운영원리로부터 현실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규범을 도출한다. IV장에서는 III장의 경제규범으로부터 주류경제학을 평가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논문 결과를 요약하고 성경의 경제규범을 반영해서 기존

의 경제학이 지향해야 할 연구 분야를 제시한다.

## II 성경의 경제운영원리<sup>2)</sup>

성경으로부터 ‘경제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주 만물 및 인간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운영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 원리는 창조, 인간의 독립과 타락, 심판과 약속, 새로운 약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보자.

첫째, 창조의 경제적 원리를 살펴보자.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 내용 중 경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우주만물의 ‘창조자’이며 ‘보존자’라는 사실이다.<sup>3)</sup> 하나님이 우주만물의 창조자라는 것을 인간의 법체계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우주만물의 주인으로서 우주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또한 우주만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분권(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우주의 ‘보존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되었다고 스스로 만족한 우주만물에 대한 책임감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주만물 만든 후에 우주만물의 일부이면서도 우주만물과 구별되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로 창조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만물과 인간의 운영원리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함의(含意)를 지닌다. 첫 번째 함의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윤리적으로 선(善)하게’ 창조되었다고 해석된다. 두 번째 함의는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일방적으로 조작되고 통제되는 유희의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든 우주만물의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보살피고, 보존하는 임무, 즉 청지기(stewardship)의 임무를 준다. 물론 이런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주만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 받았다. 또, 인간은 청지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한다.

창조의 원리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성경의 경제규범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지위는 ‘청지기(steward)’이고, 임무는 자연을 돌보고 보존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사실에 기초한다. 즉, 인간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위임 받은 물질세계(자연)를 아무제한 없이 무한정으로 사용하거나 훼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창조의 원리에는 인간의 소비와 생산을 절제하라는 함의가 있다. 이런 함의는 개인의 소득증가나 국가의 경제성장이 무한정으

---

2) II, III, IV장의 내용은 Donald Hay(1989) “Economics Today: A Christian Critique”와, 권명중(2008)의 “경제학 성경에 길을 묻다”의 내용을 참고하여 집필하였다.

3) 신이 우주의 창조자이며 보존자라는 개념은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반복되어 언급된다.

로 높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고도성장 선호의 경제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과 창조의 원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인간의 독립과 타락(fall)을 설명해보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던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선택을 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규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런 선택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이제 죽음을 회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형상이 훼손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받게 될 처벌의 내용에 있었던 것이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인간을 윤리적으로 악한 존재로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즉, 인간이 선한 존재에서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는 타락한 존재로 변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안전에 대한 소망)이 이제 인간본성의 일부가 되어서 인간이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만의 안전 지키기 위해서 권력과 명성을 추구하게 된다. 거대화, 집중화, 권력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그 기저에는 자기만이라도 죽음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이기심에 기인 한다<sup>4)</sup>. 이런 변화된 인간본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류는 단절되게 되었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돌보고 보존하는 관계에서 훼손하고 착취하는 관계로 바뀐다.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세계가 인간의 생존에 불리하게 변하게 된 것이다. 인간은 그 동안 관리인의 지위로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죽는 날 까지 수고를 해야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낱알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간에게 일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면서 얻게 되는 성취의 즐거움을 맛보는 수단이라 수고와 고통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독립과 타락의 경제적 함의는 자원이 희소하게 되어서 인간에게는 ‘선호’가 생기고, 자연은 ‘한계생산체감’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이 타락된 인간이 사는 경제 또는 경제학의 공리(axiom)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과 땅의 모든 짐승에게 채소, 열매, 나무와 풀을 먹거리로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다. (창세기 1:27-30). 그리고 인간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지 않아서 어떤 인간도 죽지 않았다면 아담의 후손들의 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났을 것이다. 즉 지구의 인구는 지수함수처럼 체증적으로 증가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땅에 충만한 인간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

---

4) 이것은 성경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후 떠돌이가 되어 처음에 시작한 일이 도시를 건설한 것과 홍수로 인한 심판 이후에 인간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건으로 나타난다.

해서 자연자원을 투입요소로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생산물의 생산함수도 지수함수와 같은 체증적인 형태를 가져야만 한다. 생산함수가 이런 형태를 가지지 않으면 기아(飢餓)로 죽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내용과 모순이 된다. 따라서 타락 전 에덴의 자연 상태와 경제는 수확체증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독립과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시간이 희소한 자원이 되었고,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는 자연자원이 저주를 받아 척박하게 되어서<sup>5)</sup> 생산물의 생산이 수확체감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생산이 수확체감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범위를 넘어서 생산요소를 계속해서 투입해도 생산물의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자원이 희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인구증가가 억제되었지만, 한정된 수의 인간생존을 위해 의식주를 공급할 생산물의 공급도 수확체감법칙에 따라 넉넉지 않게 되어 인간의 경제적인 삶이 궁핍하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fall)후에 일어난 경제 환경의 변화이다.

희소한 자원은 자원이 인간의 물질에 대한 갈망을 해결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기적 인간은 자신의 필요와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이러한 우선순위가 선호가 된다(즉,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 이러한 선호가 물질에 대한 효용으로 치환될 수 있으므로 선호가 효용함수로 대체된다. 그런데 이 효용함수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따르므로 인간의 수요가 본능적으로 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 효용함수가 바로 경제이론의 한 축인 수요와 수요의 억제를 설명하는 기초가 된다.

또, 수확체감 현상을 비용관점으로 설명하면,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비용이 체증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수준의 생산량을 넘는 범위에서는 비용 때문에 생산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타락이후에 생산이 자연적으로 억제되는 내적 메커니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선호와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은 경제이론의 공리이고, 이 두 가지를 초기 가정으로 하고 정확한 연역적 논리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특수한 경제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L. Robbins(1935)). 특히,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과 ‘수확체감의 법칙’은 현재의 한 시점에서 수요와 생산이 억제되는 물질적 특성을 나타내지만, 현실에서 과다수요와 과다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는 두려움 때문이다. 즉, 미래의 안전을 위한 욕심이 현재의 필요이상으로 수요를 나타내고, 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생산이 이루어진다.

---

5)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척박하게 되거나 황폐하게 된 것을 재창조(recreation)라고 하지 않고 ‘decreation’이라고 한다. Decreation은 ‘죄에 의한 파괴(destruction)’ 또는 ‘기존질서의 종말 (the end of an existing order)’을 나타낸다. [“The Cottonwood Chronicle”, D. Eric Williams (2008.2.28.)]

셋째, 심판과 언약을 살펴보자. 타락된 인간에 의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벌을 주다가, 이런 악행이 극에 달하자 대홍수를 통해서 심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과멸시키는 대신 관용의 방법을 선택한다. 즉, 대홍수에서 몇몇의 인간을 살아남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로운 삶에서 악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한 개인(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와 약속(언약)을 맺는다. 그 약속은 개인과 그 자손으로 구성된 공동체(이스라엘)가 몇 가지 규범, 즉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규범을 지키면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규범을 지켰을 때의 보상을 넓게 해석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인간이 가지기 시작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존을 위한 고통을 없애주고,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평안을 회복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어, 다른 민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갈라디아서 3:6-9, 14)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한 규범을 그대로 따르게 하려는 계획을 실행한다.

성경의 '심판과 언약'의 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함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이스라엘 민족)에게 악행을 근절하고 흠 없이 살게 하기위해서 직접 지시한 규범 중에서 경제제도에 관한 것으로부터 도출된다. 첫째, 토지에 관한 규범이다. 토지는 가난과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를 금지하였다. 인간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소유권은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 임대해줄 수 있는 권리, 매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데, 토지에 대한 매매 권리를 제한한 것은 소유권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언한 창조원리와 일치한다. 둘째, 근로(노동)에 관한 규범이다. 이 규범은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어긴데 대한 벌과 관계된 것이고,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택한 결과와 관계되어 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함에 따라 인간은 반드시 일을 해야지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는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을 수행하는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는 근로에 대한 성경규범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다. 셋째, 빈곤에 관한 규범이다. 빈곤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빈곤에 대한 구제는 1차적으로 가족과 친척, 2차적으로 사회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땅을 잃고 빈곤에 빠지면, 여유가 있는 친척이 그 땅을 되찾아서 일을 계속하게 해주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친척이 자기 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땅이 처음부터 없는 외국인,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땅에서 수확을 할 때 철저히 추수하지 말아야 되며 빈곤한 자들이 떨어진 알곡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가난 등으로 땅을 팔았을 경우라도 50년이 되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땅의 원소유자가 땅을 되찾을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사회적 약자나 빈곤한 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구체화한 것이다. 넷째, 정부에 관한 규범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규범을 준 시기가 자급자족의 농업경제이기 때문에 규범이 근대 이후 정부의 역할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당시의 정부역할은 현재의 사법권과 비슷한 재판을 관할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정도였다. 하나님이 재판관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매우 엄격했고,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하나님이 정부에 요구하는 규범은 악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약속(새 언약)을 설명해 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약속(언약)을 하고, 그 약속을 실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함으로써 인간의 악행을 줄이려는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하나님과 약속을 한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악행을 그치지 않았고, 이스라엘 이외의 민족도 마찬가지였다. 죄를 끊임없이 짓는 타락한 인간과 도덕적 흠결이 없는 하나님과의 화해는 불가능한 것이 되었고, 대홍수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대홍수에 의한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관용을 베푼다. 하나님은 중재자를 세상에 보내 인간이 그동안 지은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에 대해서 대신 벌을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하고, 새로운 약속을 제안한다. 새로운 약속은 중재자가 자신이 그 동안 지은 죄를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민족에게 요구했던 규범, 즉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인 섬김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악행을 하지 않겠다는 규범을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약속인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을 없애주는 영원한 삶과 생존을 위한 고통을 없애주고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의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중재자에 의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와 새로운 약속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 때와 같이 직접교류가 가능해졌고, 하나님의 직접통치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약속에 따르는 경제적 함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이 창조될 때로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함의도 창조의 원리로부터 추론했던 것이 반복된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세계를 보전하고,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청지기(steward)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성경원리로부터 추론된 경제적 함의를 구체적인 경제규범으로 구체화시키고, 이런 규범을 기존의 경제이론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장에서는 이 내용을 설명해보자.

### III. 성경의 경제규범

성경원리로부터 경제규범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경으로부터 도출된 경제규범이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하는가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창조 때의 인간을 대상으로 도출된 경제규범을 타락한 인간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의심은 하나님께서 정한 규범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적용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고, 그 우주만물 모두에 대해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창조원리와 모순이 된다. 따라서 성경으로부터 도출된 경제규범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의심은 타락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서 해소된다. 타락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은 인간이 양심이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타락 전의 인간을 대상으로 도출된 규범을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경규범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윤리를 도출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였다(S.C. Mott (1984)). 첫째, 경제규범이 적용되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규범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면, 규범이 지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성경규범이 적용하는 현실은 타락된 인간상이다. 예를 들어 타락한 인간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연을 파괴하고, 거래에서 부정적하며, 경제적 약자를 억압할 수 있다. 이런 경제행위를 제한하는 경제규범은 현실을 개선해서 사회구성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둘째, 경제규범의 목적이 진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은 II장에서 성경원리의 세부사항인 창조, 인간의 독립과 타락, 심판과 약속,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이미 설명한바와 같이 사회와 경제활동에서 행해지는 악행을 없애는 것이다. 셋째, 경제규범을 지키려는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 양심이나 법적인 제재를 두려워해서 경제규범을 지키려는 동기를 가지거나 종교적 믿음을 따르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경제규범을 지키려는 동기를 가진다.

II장에서 도출한 성경원리의 경제적 함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어(keyword)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인간의 지위가 '청지기(steward)'라는 것이다. 인간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 인간이 이용하는 자연자원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에게 관리하라고 위임하였다. 인간은 관리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임받은 재능, 능력, 자연자원을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능과 능력을 부여받고 자연에 대한 통치를 위임받은 인간이 재능, 능력, 자연자원의 주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관리직은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재능, 능력, 자원의 사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잘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직책이다. 청지기는 주인을 섬기는 일꾼이고, 그가 하는 일이 봉사(service)이므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이 있고 겸손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청지기의 개념(stewardship)을 자원의 사용과



처분, 근로, 분배에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경제규범을 도출한다.

첫째, 자원의 사용과 처분과정

원칙1 :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자연자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생존의 필요를 넘어서서 자연자원을 훼손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창조의 원리에서 인간은 자연(자원)을 돌보고 보전할 임무를 부여 받았다. 자연이 인간의 소유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이므로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대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이 '땅이 썩었다'고 할 정도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했다. 이러한 행위는 '청지기'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다.

기존의 경제학 이론에서 자연(자원)의 보전이라는 관점이 소비나 생산이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능하다면 무제한의 소비와 무제한의 생산이 암묵적으로 권장된다. 현실에서 소비가 제약되는 것은 한계효용 체감 때문이고, 생산이 제약되는 것은 비용체증(한계 생산체감) 때문이다. 공리주의 가치관은 효용(=행복)의 극대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한 없는 생산(자연(자원)의 사용)을 허용한다. 이런 가치관에서는 최근 환경보전과 양립할 수는 있는 지속적인 성장을 요구하는 소수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본질적으로 제약이 없는 지속적인 성장을 윤리적으로 옳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 결과로 자연(자원)은 훼손되고 파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경의 경제규범에서는 소비와 생산의 범위를 인간의 필요에 한정함으로써 자연보전과 성장이 양립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옳은 것으로 간주한다.

원칙2 :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 자연(자원)의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

자연(자원)의 사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책임 없는 청지기는 두 가지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가능성은 청지기가 자연(자원)을 사용해서 얻은 결과를 자신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연(자원)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자신의 소유(부)가 커지므로 자연(자원)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한다. 자연(자원)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청지기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 자연이 파괴되고 자원이 고갈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것을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이라고 한다. 성경의 창조원리는 자연을 사용해서 얻은 결과물도 하나님의 소유로 전제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연을 사용해서 얻은 결과물을 인간이 소유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자원이 고갈되는 일이 일어난다.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청지기가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자연(자원)을 열심히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자기가 소유할 수 없다면, 굳이 자연(자원)을 잘 사용할 동기가 없게 된다. 그래

서 자연(자원)을 잘 돌보지 않고, 낭비하는 식으로 사용한다. 이런 문제를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라고 하는데, 공무원이나 기업의 경영진이나 직원들의 근무태만이 대표적인 예이다.

공리주의 가치관에 기반을 둔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원의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개인의 효용극대화가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공동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왔을 때의 해결방안은 사회후생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공리주의의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효용의 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원이 고갈되는 문제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효용을 기대 효용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구성원들의 주관적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에서 정한 확률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지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리주의 규범으로는 자원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개인이 자기의 효용을 늘리지 않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 ‘대리인’ 문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문제가 20세기 후반의 가장 중요한 미시경제문제 중의 하나로 제기되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positive)과 음(negative)의 인센티브의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Holmstrom (1979)). 그러나 성경의 경제규범은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개인적인 이해(보수)에 관계없이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규정한다. 이런 가치관은 공리주의와 다른 것으로 자원고갈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둘째, 근로

원칙3 : 인간은 근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성경에서 근로는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일하는 분으로 묘사된다. 하나님은 우주만물과 인간을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시고, 인간과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인간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일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과업인 자연을 보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은 보람이고 즐거움이다. 일의 또 다른 측면은 타락된 인간으로부터 나온다. 타락 전의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에덴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근로 없이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독립을 선택한 후 에덴동산으로부터 쫓겨나와 척박한 자연에서 살면서 일하지 않으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일은 이제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의무가 되었고, 수고와 고통으로 변하게 되었다.

기존의 경제학에서 근로는 권리나 의무가 아니라 선택대상이다. 여가의 대체

재로서 근로(노동)는 여가보다 효용이 높은 경우에만 선택된다. 이런 선택의 근거는 타락된 인간의 측면이 반영되어서 일(노동)을 하는 것이 고통이며 비효용(disutility)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에, 여가는 즐기는 것이므로 행복이고 효용(utility)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근로에 대한 분석은 근로의 또 다른 측면인 근로의 즐거움을 반영하지 못한다. 반면에, 성경의 경제규범은 근로의 두 가지 측면인 고통과 즐거움을 반영하며, 근로는 반드시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권리이면서 의무로 규정한다.

원칙 4: 일은 인간에 부여된 재능을 사용(관리)하는 수단이며, 공동체와 협력하는 수단이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우주만물이 창조된 후에 마지막에 창조되었다고 나온다. 이것은 인간도 우주만물의 일부인 동시에 우주만물과 구별되어 그것을 관리하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다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은 일이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즉, 우주만물의 일부로 인간도 자연처럼 보전되고 관리되어야 하는데, 관리의 주체가 인간 자신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에게 부여된 재능이나 능력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이런 발전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경을 보면 인간은 각자가 고유한 재능을 부여 받았으며(에베소서 4:7, 11, 16, 고린도전서 12:14-26) 공동체와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 창조 이야기에서 제시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가족이다. 하나님이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세상 운영 원리를 바꾸었을 때 약속에는 공동체와의 약속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의 공동체에서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임무(자연의 관리와 이웃사랑)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맺어지는 관계이다. 즉, 인간이 각각에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 분업을 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서로 협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업과 협업을 연결하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고유한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이 공동체와 협력하는 수단이 된다. 이것이 일이 가지는 두 번째 성격, 즉 일이 사회와 협력하는 수단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기존의 경제 분석에서 일(근로)은 단순히 하나의 생산요소로 간주되고, 노동의 질을 높이는 훈련과 교육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취급된다. 즉, 공리주의 규범에 따르면 훈련과 교육 같이 노동의 질(즉, 자기 재능의 개발)을 높이는 행동이 거기에 수반하는 비용보다 큰 효용을 주는 경우에만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비용을 지출한다. 그러나 성경의 경제규범은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붙지 않는 옳은 행위이다. 또한 기존의 경제 분석에서 일을 통한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협력하는 협업은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 본성 때문에 상대방의 근로에 무임승차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Alchian and Demsetz(1972)는 협업에서 발생하는 근로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조직으로 생겨난 것이 고전적

기업이 됐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공리주의 규범에 따르면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동체의 후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모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규범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하지만 성경의 규범은 협업에서 이기적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행동이며, 오히려 협업에서 협력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옳은 행동으로 규정한다.

셋째, 분배

원칙 5: 인간은 의식주를 공급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기본적 욕구는 일차적으로 생산적인 근로에 의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음식과 옷을 주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과정에서도 만나라는 음식과 물을 공급하였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삭줍기를 통해서 음식을 확보하도록 수확의 일부를 남겨 놓게 하였고, 외국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의식주를 공급받는 것은 창조원리에 포함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성경을 보면, 타락 전에는 의식주가 근로 없이도 공급되었지만, 타락 후에는 근로를 해야지만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개개인에게 땅을 분배하고, 땅을 매매할 수 없게 하거나, 매매하더라도 희년에 다시 그 땅을 되돌려 받게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리주의 가치관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문제에 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생존의 기본권이 보장되는지의 여부가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성경의 경제규범은 생존의 기본권 문제를 1차적으로 근로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제도나 사회적 책임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한다.

원칙 6: 청지기의 지위를 갖는 인간은 자연(자원)을 사용해서 나온 생산물을 모두 소비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부자는 일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의무가 있다.

인간은 재능과 자원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인 것 이상의 생산물을 소비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과부, 고아, 외국인과 같은 약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안식년에는 빚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빌려주라는 법이 있다.

공리주의 가치관에 근거한 경제학에서는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생산물에 대한 완전한 사용, 임대, 처분권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개인의 선택문제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 성경의 경제규범은 생산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완전한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재원을 사회적 약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부자에게는 가난한 사람의 구제를 의무화함으로써 타락된 인간본성인 이기심을 경계하도록 한다. 즉, 성경의 경제규범은 개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복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우주만물과 인간에 대한 운영원리를 바탕으로 경제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여섯 개의 성경 경제규범 원칙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경제규범이 공리주의 가치관에 근거한 주류 경제학의 규범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주류 경제학과 성경사이의 규범(정의)의 차이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주류경제학의 규범의 근간이 되는 공리주의 규범은 인간이 정한 규범이다. 그것도 모든 인간에 의해서 합의된 것이 아니라 여러 철학 학파들 중에서 하나의 학파가 규정한 것이다. 반면에 성경의 경제규범은 하나님이 인간의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부터 추론된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삶에 대한 규범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규범을 어겼을 때 징계를 하고, 징계를 받고 뉘우치면 용서를 해주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사는 것을 약속해준다. 다시 말해서, 규범의 실천 여부에 따라 보상과 처벌의 시스템이 구비되어있다. 기존 경제학 규범과 성경 규범(정의) 사이의 또 다른 차이는 기존의 주류 경제학의 규범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을 전제로 도출되었지만 성경의 경제규범은 타락되지 않은 완전한 인간을 전제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규범은 현실적이지만 성경의 경제규범은 이상적일 수밖에 없다. 성경의 경제규범과 현실사이의 괴리는 기존의 경제규범과 현실사이의 괴리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러한 괴리를 줄이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성경을 보면, 이 타락된 현실로부터 규범(정의)에 가까운 삶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이 지도자 또는 통치기관(즉 근대 이후의 개념으로는 정부)이다. 성경에서 통치기관(통치자 또는 정부)의 역할은 소극적으로는 무질서를 방지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정의를 촉진하는 것이다. 경제생활의 영역에서는 경제규범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통치자나 통치기관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한다. 다만, 하나님은 대리인인 통치자나 통치기관이 하나님의 명의를 빌어 자신의 뜻을 강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인간의 책임 있는 자유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히 한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규범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성경의 경제규범에 부합되는 경제체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성경의 경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응해서,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키는 방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인간들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도출한 경제규범의 관점에서 기존의 경제 분석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 IV. 성경 경제학에 의한 기존 경제학 평가

III장에서 성경의 경제규범과 기존 경제학의 규범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무엇이 옳은 것이냐에 관한 관점이 다르다. 후생경제학에서 옳은 것은 개인 또는 가족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옳은 것은 후생경제학처럼 자신에 대한 사랑(이익)을 배제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이익에 대한 배려)하는 것이다. 즉 옳은 것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정의 된다. 둘째, 경제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다. 공리주의에 근거한 기존의 경제학은 행위의 결과로서 효용이나 성과가 중요하다.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행위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진다.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는 행위의 결과인 효율, 성장, 평등이 주요 관심사이지만, 성경에서는 옳은 것으로 간주되는 칭지기로서 책임 있는 행동, 약자를 돌보는 행동, 공동체에 협력하는 행동이 가치 있는 행동이다. 셋째, 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다르다. 공리주의에 근거한 주류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가치가 거의 모든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적 가치는 개인 가치의 합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공동체를 개인의 합 이상으로 간주한다. 인간이 공동체의 관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임무를 받았다. 따라서 성경의 규범은 공동체 윤리로서,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개인의 삶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된다.

이와 같은 규범의 차이는 실증경제 분석의 내용에도 반영된다. 실증 경제 분석은 '합리적 경제인'에 대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성경은 이 가정이 타락된 인간의 이기적 본성은 잘 반영하고 있지만 타락된 인간에게 아직도 남아 있는 신의 품성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미시경제 분석의 문제점을 일으킨다. 첫째, 근로에 대해서 타락의 특성은 반영되지만 창조의 특성은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인간은 아무런 대가없이 일을 하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또, 동정심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가치를 두고 이타적인 행동(이런 행동을 헌신이라고 한다)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활동 중에서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고 있을 이런 활동들이 경제 분석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시장거래에서 타락과 관련된 인간관계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 타락 전의 인간관계는 협력과 배려를 전제한다. 이러 특성을 반영해서 성경에서는 흥정에서 상대방을 손해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타락 후의 인간관계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권력과 공포가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경제 분석에서는 거래는 가치중립적 인간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이런 분석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강압적이거나 이타적인 거래현상이 반영되지 않는다. 셋째, 개인의 일에 대한 효용을 계산할 때 일하고 싶은 욕구에 의한 만족감이 계산되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일은 수고와 고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효용으로만 계산된다. 그러나 일 자체가 주는 효용도 계산되어야 한다.

##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공리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후생경제학의 경제규범의 대안으로 성경으로부터 경제규범을 도출하였다. 성경경제학의 경제규범은 기존의 경제학의 경제규범과 경제정의에 대한 관점, 경제가치에 대한 평가방식, 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다르다. 이러한 규범의 차이가 현실경제에서 자원의 사용과 처분에 대한 결정, 근로와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의 차이를 유인한다. 성경의 경제규범이 기존의 경제학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경제현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 분석은 성경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간 행동에 대한 공리주의적 가정으로부터 탈피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선호와 동기를 고려하는 다양한 가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 분석에 문화의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타락이 심한 문화는 합리적 경제인 모형이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할 수 있지만, 신의 품성의 반영된 문화는 창조가치를 반영한 경제인 모형이 경제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셋째, 경제 분석의 의제에 성경의 원칙이 포함된 성경 경제학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 경제학이 다루어야 하는 의제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경제구조가 얼마만큼 책임 있는 관리인의 경제활동을 허용하는가? 경제활동과 자원사용의 관계는 어떠한가? 자연 질서의 관리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경제 분석에 반영되는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일자리 제공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빈곤의 원인은 무엇이고,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부의 추구가 사회의 다른 가치 추구에 손해를 끼치는 정도는 얼마인가? 통치기관(정부, 의회, 사법부)이 경제 분야에서 정의를 증진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등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기존의 경제 분석에 범위를 넓혀 경제생활에 좀 더 풍성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권명중 (2008), “경제학 성경에 길을 묻다”, 21세기북스  
대한성서공회 (1993),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황의서 외 (2015),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쓴 경제학 입문”, 무역경영사  
Alchian and Demsetz (1972)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No5, pp 777-795  
Hay, D (1989). "Economics Today: A Christian Critique", Apollos  
Holmstrom (1979), " Moral Hazard and Observability",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 10, pp 74-91  
Lobbins, L (1935). " An Essay on the Nature and the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Macmillan  
Mott, S, C (1984), "Jeus and Social Ethic" Grove Books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